

現代의 危機와 哲學 ;

不安한 生을 營爲하는 分께 [제1회]

金基錫

現代는 한 개 動亂의 世紀입니다. 現代는 우리들을 몰아 不安과 動搖에로 내어보냅니다. 이 不安 및 動搖가 現代가 자기를 구별하는 徵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저 어두운 얼굴들, 저 들려오는 아우성. 이리도 亂한 世代를 앞에! 노코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오늘이 이 世紀的인 混亂이 쉬 거친다고도 하고 길이 支持된다고도 합니다. 우리들은 歷史의 方向이 『빛』에 향하는 것인지 『어둠』에 향하는 것인지를 모르거니와, 現代가 분명히 한 개 苦惱 속에 있고 또 그 苦惱가 지극히 크고 깊은 것임을 압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마음의 平和를 일했습니까? 現代의 危機는 아시다싶이 이 두 갈래로 난할 수가 있습니다. 文化에 있어서의 危機와 生活에 있어서의 危機. 現代의 文化는 한 개 심한 混亂 속에 빠졌습니다. 根幹이 마르면서 枝葉에 흐르고 辨說에 떨어진 채 理論을 일혔고, 이리하여 그 하구만흔 □□에 비쳐 한결같이 顛落, 崩壞의 徵候를 들어냅니다.

文化의 危機는 母論 文化의 危機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文化가 어느 意味의 生活의 表現인 한에서 文化는 본대 生活로부터의 文化이겠습니까. 生活로부터의 文化. 이것이 文化의 生活에 대한 根本 聯關의 一面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해서 現代에 있어서의 文化의 危機는 곧 現代에 있어서의 生活의 危機를 前提 또는 地盤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文化는 生活에 依하여 制約되는 한편 그 자신 도리켜 生活을 規正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生活은 부단히 文化에 향하고 文化에 이끌려야 합니다. 文化에 나위지 않는 生活이 있다고 할진대 그것은 한 개 生存이기는 할지언정 勝利의 生活은 되지 못합니다. 文化에로의 生活. 이것이 文化의 生活에 대한 根本關聯의 다른 一面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現代의 文化는 오래 전부터 動搖騷亂 속에 빠져 그 서두르는 소리,

그 떨치는 衣裳만이 높고 수선스러울 뿐이고, 아직도 依然히 懷疑, 〇巡, 低迷에서 버서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現代에 있어서의 文化의 悲慘이면서 또 그 까닭으로 해서 나아가 現代에 있어서의 生活의 悲慘을 불러 이르는 것이 됩니다.

文化와 生活. 生活과 文化. 이것은 『먼저』와 『나중』이 잇는 直線 같은 것이 아니고, 『먼저』가 『나중』이고 『나중』이 『먼저』인 圓環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現代는 生活보다는 더 만히 文化를 일혔습니다. 生活을 먼저 일흔 까닭으로 해서 文化를 일케 되었는지는 모르나 이제 새로운 生活을 세우는 일은 새로운 文化를 세우는 데서 出發하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어째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根源的인 事實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根源的인 事實이란 다름 아닌 우리들의 『生』이겠습니까. 『生』. 이것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生』. 조금도 形而上學的인 概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生』은 말하자면 概念이 아니고 그 자신 한 개 運動이요 生成입니다. 『生』이 저 抽象的인 精神 또는 物質과 구별되는 것이 진실로 이 現實性에 잇었습니다. 『生』은 어떤 超越的인 實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혀 有限的 實存의 意味를 가집니다. 이 實存性이란 단순한 有限性은 아닙니다. 有限性이 客觀的인 存在에 치우침에 反하여 實在性은 主體的인 事實에 열매입니다.

『生』의 秩序는 〇히 主體的 事實의 秩序라고 불러서 마땅합니다. 主體的 事實의 秩序. 이것은 그 속에 實踐를 가져야 합니다. 實踐을 모르는 主體란 게 잇겠습니까? 이리하여 우리들은 『生』을 實存해 잇어서 살렸고, 實存이 나와 그 속에 實踐을 가져야 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實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實踐은 그 자신 한 개 運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實踐이 자기를 단순한 運動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어떤 새로운 性格 또는 徵表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 새로운 性格을 나는 理性이라고 봅니다. 理性과 헤어질 때 實踐은 번번히 한 개 사나운 殺伐에 굴러떨어지기 때문입니다.

理性이라고 해도 『헤-겔』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世界理性이 아니고, 말하자면 實存理性으로서의 意味를 가지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의 現實的인 生이란 진실로 이 理性과 實踐의 具體的 聯關이 아니겠습니까? 理性은 理性이면서 무단히 實踐에 나아가고, 實踐은 實踐이면서 무단히 理性에 돌아옵니다.